

JB Weekly Web Magazine

| 2026.04.15

“ Your Gateway to Global Trade ”



Contents

- 01 관세청, 중동 리스크 점검... 관세 2,407억원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 p.1
- 02 ADB "한국 성장률 1.9%"... 단, 중동 갈등 한 달 내 안정화 전제 p.3
- 03 FTA 피해기업에 연 2% 용자·컨설팅 제공 p.5
- 04 한국산 벌꿀, 사우디 수출 재개... 사우디 수입허용 국가 공식 등재 p.6
- 05 반도체 호황으로 ICT 수출 400억달러 첫 돌파... 미국,중국 등 수요 몰려 p.7

1

관세청, 중동 리스크 점검... 관세 2,407억원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에 신속통관 지시 및 수출 사전 승인 심사 강화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세·물류 지원 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한 달간 5,070건의 물류 지원을 했으며 우회 항로 및 대체 항공 화물에 운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전담조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아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했다.

먼저 물류 분야에서는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 입항 전 통관 절차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 반입이 가능하게 하는 등 신속통관을 지원했다. 또한 중동 지역 정세로 인해 지연된 수출신고 4,943건에 대해 수출 이행 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등 총 5,070건의 물류 지원을 했다. 긴급 수요물품과 중동 지역으로 수출 후 회항한 '유턴화물'은 24시간 통관 지원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최우선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세정 지원 측면에서는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곳을 대상으로 2,407억원 규모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원유,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품목 7개의 수입 가격을 매주 분석하고 수입 가격 폭등 또는 특정 국가 의존도 상승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관계 부처에 경보를 전파 중이다.

또한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수급 차질을 겪고 있는 석유 및 요소수, 나프타에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해 신속한 국내 공급을 유도했으며 국내 자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 사전 승인 심사를 강화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1

관세청, 중동 리스크 점검... 관세 2,407억원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에 신속통관 지시 및 수출 사전 승인 심사 강화

추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우회 항로 또는 대체 항공편을 이용하는 화물에는 운송비용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 특례 실무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5월 1일 발효 예정인 '한·UAE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혜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4월 13일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받는다.

분야별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정지원 담당부서	심사국 세원심사과	책임자	과 장 오현진 (042-481-7870)
		담당자	사무관 주미옥 (042-481-7871)
통관·물류지원 담당부서	통관국 통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양승혁 (042-481-7810)
		담당자	사무관 정용훈 (042-481-7811)
운임특례 담당부서	심사국 심사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천정 (042-481-7860)
		담당자	사무관 남우현 (042-481-7628)
공급망 위기관리 담당부서	정보데이터정책관 데이터담당관	책임자	과 장 지성대 (042-481-7790)
		담당자	사무관 오현정 (042-481-7777)
피해접수창구 담당부서	국제관세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임주연 (042-481-3210)
		담당자	사무관 김수미 (042-481-3211)
FTA수출지원 담당부서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책임자	과 장 김태웅 (042-481-3230)
		담당자	사무관 황태훈 (042-481-7968)

출처: 관세청

2

ADB “한국 성장률 1.9%”... 단, 중동 갈등 한 달 내 안정화 전제

수출 회복 기대 속 유가·통상 리스크 상존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26년과 2027년 각각 1.9%로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정부 지출 확대가 성장세를 지지하는 가운데, 중동 갈등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ADB는 4월 10일 ‘2026년 4월 아시아 경제전망(ADO)’을 발표하고 한국의 2026년 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0.2%p 상향한 1.9%로 제시했다. 2027년 성장률 역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전망은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 기대와 함께 금리 인하 지연 속에서도 소비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반도체·국방·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도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ADB는 중동 지역 갈등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을 주요 하방 리스크로 지목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AI 수요 불확실성, 반도체 경기 변동성 등이 향후 성장 흐름을 제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물가의 경우 2026년 상승률을 2.3%로 전망해 기존보다 0.2%p 상향했다. 2027년 물가상승률은 2.0%로 예상했다. 이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원화 약세, 전자제품 가격 상승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 연료 가격 안정 정책 등이 물가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번 전망은 중동 갈등이 1개월 내 조기 안정된다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것으로, 갈등 장기화나 추경으로 인한 경제 효과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 경제 흐름은 전망치와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ADB는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을 5.1%로 전망하며 기존보다 0.5%p 상향 조정했다. 견조한 내수와 안정적인 노동시장,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중동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성장률은 4.7%로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은 5.6%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전망부터 ADB는 새로운 국가 분류 체계를 도입해 한국을 싱가포르, 홍콩, 대만과 함께 ‘선진 아시아-태평양 국가’로 재분류했다. 이에 따라 아태개발도국 분석에는 제외됐으며,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 흐름 속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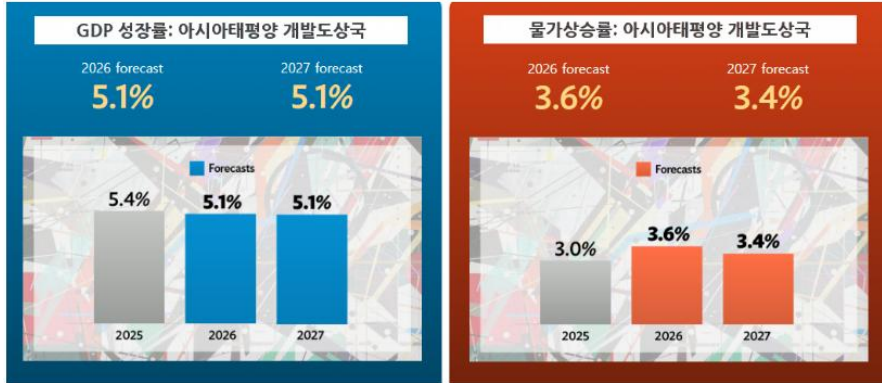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2

ADB “한국 성장률 1.9%”... 단, 중동 갈등 한 달 내 안정화 전제

수출 회복 기대 속 유가·통상 리스크 상존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 GDP 성장률&물가상승률



출처: 아시아개발은행 홈페이지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 전망(2026-2027년)

구 분	GDP 성장률(%)				물가상승률(%)			
	'25	2026		'27	'25	2026		2027
		2025.12.	2026.4.			2025.12.	2026.4.	
한국	0.9	1.7	1.9	1.9	2.1	2.1	2.3	2.0
개발도상아태국 (DAP)	5.4	4.6	5.1	5.1	3.0	2.1	3.6	3.4
중앙아시아	4.6	5.0	4.2	4.4	25.6	7.1	20.6	16.3
카자흐스탄	6.5	4.5	4.8	4.5	11.4	9.5	10.4	9.5
동아시아	5.0	4.1	4.6	4.5	0	0.6	0.6	1.0
중국	5.0	4.3	4.6	4.5	0	0.4	0.6	1.0
남아시아	6.8	6.0	6.3	6.8	2.9	4.7	5.0	4.6
인도	7.6	6.5	6.9	7.3	2.1	4.2	4.5	4.0
동남아시아	4.8	4.4	4.7	4.8	2.3	2.8	3.2	2.8
인도네시아	5.1	5.1	5.2	5.2	1.9	2.5	2.5	2.5
말레이시아	5.2	4.3	4.6	4.5	1.4	2.2	1.8	1.9
필리핀	4.4	5.3	4.4	5.5	1.7	3.0	4.0	3.5
태국	2.4	2.1	1.8	2.0	△0.1	1.2	1.3	1.0
베트남	8.0	6.4	7.2	7.0	3.3	3.8	4.0	3.8
태평양 도서국	4.2	3.4	3.4	3.2	1.7	3.4	4.2	3.5

출처: 재정경제부

3

FTA 피해기업에 연 2% 용자·컨설팅 제공

산업부, '20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산업통상부가 FTA 등 통상조약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통상조약 이행으로 매출 또는 생산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는 '20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4월 6일부터 모집하기 시작했다. 선정된 기업은 연 2% 고정금리의 용자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2,000만원 규모의 기술·경영 컨설팅도 함께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업력 2년 이상의 제조·서비스업 중소기업으로, 통상조약 영향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지원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 이내에 용자와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단기적은 운전자금 중심이었던 용자 지원에서 벗어나 AI 공정 도입, 생산라인 재편 등 설비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용자 비중을 기존 7%에서 15%로 확대한다. 단기적인 자금 지원을 넘어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실제 피해 기업뿐 아니라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보급하고, 선제적으로 지원 대상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용자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60억원(운전자금 5억원)이며, 금리는 2% 고정으로 제공된다. 기술·경영 컨설팅은 기업 규모에 따라 자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의 역량 및 외부환경 애로 분석과 성장전략 수립을 토대로 기술·경영 혁신지원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34개 지역 센터 본·지부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4

한국산 벌꿀, 사우디 수출 재개... 사우디 수입허용 국가 공식 등재

2024년 수출 중단 이후 수출시설 현지 실사 논의

한국 벌꿀제품의 사우디 수출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6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식의약 규제기관(SFDA, Saudi Food and Drug Authority)의 벌꿀제품 수입허용 국가 목록에 공식 등재됐다고 9일 전했다.

벌꿀제품에는 벌꿀, 꿀 함유 식품 또는 꿀벌 채집물(로열젤리, 프로폴리스, 화분 등)이 포함된다.

사우디정부는 2024년부터 벌꿀제품에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해, 자국 위생평가를 통과하고 제조시설을 등록한 국가의 제품만 수입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그 해 2월 우리 기업의 벌꿀제품이 현지 세관에 억류되는 일도 발생했다.

식약처는 사우디 규제기관 및 주사우디한국대사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통관 억류 문제를 우선 해결했고 양국 간 체결한 식의약 분야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한국산 벌꿀제품의 수출 재개를 위해 기업의 위생평가 절차를 지원했다. 특히 식약처는 수출시설 등록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사우디 지정 기관의 '수출시설의 현지 실사'에서 우리 수출기업 지원에 집중했다.

당초 사우디정부는 사우디 규제기관이 지정한 기관의 직접 실사만 고수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시험, 검사 및 인증기업 SGS 한국지사는 사우디의 지정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사가 불가능했다. 이에 식약처는 사우디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SGS 한국지사가 사우디 지정 기관인 'SGS 리야드 지사'와 협조해 실사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SGS 한국지사'를 통한 수출시설의 현지 실사가 가능해지면서 수출업체가 부담해야 했던 실사 비용과 대기 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여기에 한국지사 인력을 활용해 실사 과정에서의 언어 소통의 불편함도 해소돼 기업의 시설 등록이 더욱 원활해졌다.

식약처는 "2024년부터 사우디의 수입 규제 강화로 인해 발생한 수출 중단을 적극 행정으로 극복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번 사우디 수출 재개를 발판 삼아 한국산 벌꿀제품이 중동시장에서 프리미엄 K-푸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5

반도체 호황으로 ICT 수출 400억달러 첫 돌파... 미국,중국 등 수요 몰려

3월 ICT 수출 435억달러로 전체 수출액 절반 이상... 중동 전쟁에도 최고치 기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는 4월 15일, 3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2026년 3월 ICT 수출은 435억 1,000만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112.0%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73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ICT 수출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14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며 최초로 400억달러를 넘어섰다. 또한 ICT 수출은 전체 국가 수출액인 861억 3,000만달러의 절반을 넘는 50.5%를 차지했다.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와 분기 말 출하량 확대로 300억달러를 돌파하며 전년 대비 151.4% 증가했다.

휴대폰 수출은 15억 4,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7.0% 증가했다. 고사양 신제품 수요에 따른 완제품 수출 급증과 카메라 모듈 등의 고부가 부품 수요가 확대된 영향이다.

컴퓨터·주변기기는 서버용 SSD의 수요가 늘고 단가 상승에 따른 수출 호조로 35억 9,000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74.1% 증가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LCD 수출 반등에도 불구하고 전방 산업 수요 둔화로 OLED 수출이 감소해 9.3% 감소한 14억 9,000만달러에 그쳤다. 통신장비 역시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수요가 적어져 5.8% 감소한 2억 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주요 국가 전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북미와 중화권의 성장 폭이 두드러졌다.

미국은 반도체와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를 중심으로 189.0% 증가한 80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의 경우 176억 6,000만달러를 기록하며 141.0%의 증가율을 보였다. 뒤를 이어 대만, 베트남, EU에 각각 53억 2,000만달러, 50억 3,000만달러, 20억 1,000만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